LPG 차량 규제 전면 폐지

LPG 차량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1982년 택시용으로 LPG 차량이 시중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37년여 만이다. 침체일로를 겪던 LPG업계는 활로를, 소비자들에게는 재산권 및 선택권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13일 '이데일리' 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LPG 차량 관련 일반 소비자들이 5인승 레저용차량(RV)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현재 규제를 완전히 풀고 전 LPG 차종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 LPG 차량 규제와 관련 국회에 발의가 올라온 것은 201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년이 지난 사업용 LPG 차량(택시·렌터카)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2017년 1월 본격 시행되며 규제 완화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2016년 LPG 차량 규제 전면 폐지 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까지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 완화 ●2,000cc 미만 소형 승용차 완화 ●중고 LPG차 판매 제한 5년→3년 ●중고 LPG차 판매 제한 완화,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 완화 ●2021년 1월부터 규제 폐지 등 총 6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당초 LPG 차량 규제완화는 택시·렌터카 등을 영위하는 기업 및 개인 택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을 보유한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LPG 차량 규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해,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물론 관련 기술개발도 있다는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가 시급한 국가적 해결과제로 대두되면서 LPG 차량 규제는 일부 완화에서 전면 폐지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 차량 관련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제한받았던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원상복구됐다." 며 "소비자 선택권 확보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등 규제를 푼 정부의 대의적 취지에 따라 향후 완성차 업체들은 편의를 강화한 일반 소비자용 LPG 차량을 얼마나 출시해줄지, 또 LPG업계는 중장기적으로 도심 LPG 충전소 확충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등 기업들에게도 숙제가 남아있다." 고 말했다.

주택시장 한파 지속 인·허가 면적도 감소

주택시장의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면적이 줄어들면서 향후 건축 경기가 더 나빠질 전망이다. 주택 인·허가 감소는 2~3년 뒤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택을 사려는 수요도 실종되면서 이사와 결혼 등으로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었던 예년과 달리 3월이 됐는데도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12일 '세계일보' 가 국토교통부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건축 인·허가 면적은 1억6,029만m^2을 기록해 2017년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용 건축 허가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전국 기준 5,694만m^2로 18.5%나 감소했다.

인·허가와 착공은 줄어들고 준공 면적은 늘어나는 것은 "집을 짓겠다" 는 의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집을 지었다" 는 공급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음을 뜻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향후 주거건축 부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고 밝혔다. 2~3년 뒤에는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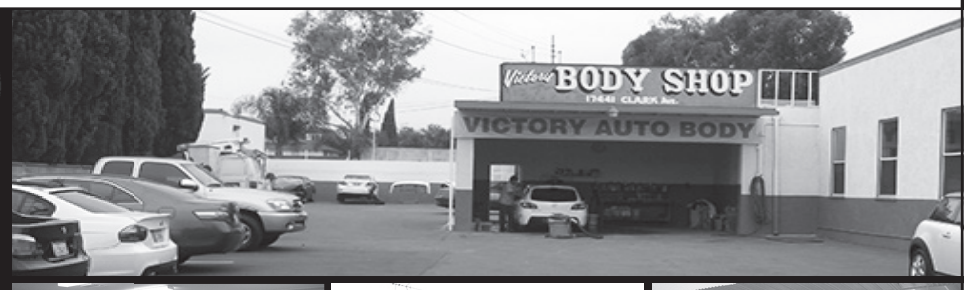
임대수익률은 하강곡선을 긋고 있다. 부동산 114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연도별 임대수익률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수익률이 4.98%로 처음으로 5%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대수익률을 집계한 200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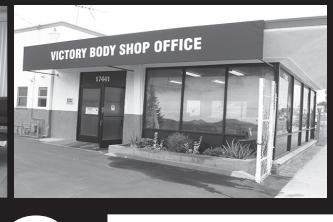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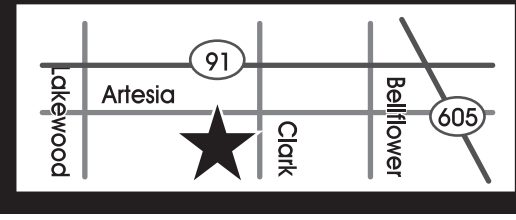
하지만 올해 입주 물량도 8만8,714실로 2004년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 예고되고 있는지라 수익률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2월 신규 임대사업자도 5,111명만 등록하면서 1월 대비 21.9% 감소했고, 신규 임대등록 주택 수도 1만 693채로 전월 대비 29.8% 줄어들었다.

소득 수준별로도 소득이 높을수록 집값 하락 전망을 높게 전망했다. 이는 주택에 대한 투자심리가 높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매매 수요자들도 아직 집값이 높다는 심리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주택 거래에 있어 '한파' 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거래가 완전히 마비가 되다 보니 모든 것이 삐꺼덕거리는 상황" 이라며 "4월에 있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본 뒤 거래를 하자는 것이 시장 분위기인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흐름을 보면 주택시장이 살아나기는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 고 말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웍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Lease Return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